

신라 眞德王 代の 「太平頌」에 대한 再檢討

김충희*

Ⅱ 차례 Ⅱ

- I. 머리말
- II. 「太平頌」의 내용 구성과 형식적 특성
- III. 「太平頌」의 지은이
- IV. 「太平頌」의 창작 의도
- V. 「太平頌」의 문학사적 의미
- VI. 결론

【국문초록】

「太平頌」은 眞德女王이 唐 高宗에게 보낸 당나라를 칭송하는 한시이다. 「太平頌」은 통일신라 이전에 지어진 몇 편 안 되는 漢詩 작품의 하나로 우리나라 한시의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太平頌」은 20개의 詩句로 이루어진 五言古詩이다. 시어의 사용, 구성의 치밀함, 대구의 배치, 운자의 사용 등을 고려해 볼 때 詩文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文人이 지은 것이다. 金台俊은 『조선한문학사』에서 이 글의 지은이로 그 무렵의 외교문서를 많이 지은 強首를 언급하였다. 이 발언은 그 후 이 작품의 작자에 대한 견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 당시 신라에는 한문 서적을 섭렵한 사람들이 상당 수 있었으므로 이 글의 지은이를 꼭 強首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글은 당나라와의 친교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목적 때문에 지어진 것이므로 그 당시에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담당자가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라는 진흥왕12년(551년)에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점령하였다. 그 후 백제와의 약조를 어기고 그 지역을 독차지하였다. 이후 신라는 고구려와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백제의 공격을 100여 년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국가의 존망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신라는 해마다 벌어지는 전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여겼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당나라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다. 『太平頌』을 지어 바친 眞德王 4년에, 신라는 자국의 연호를 버리고 唐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가적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太平頌』을 지은 의도는 당의 군사력을 빌리기 위한 외교적 목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太平頌』은 현전하는 신라의 최초의 한시이며, 현전하는 삼국시대 신라의 한시로서 유일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문헌에서 전해지고 있는 三國時代의 漢詩를 찾아보면 고구려의 작품으로 작자미상의 『人蔘讚』, 定法師의 『詠孤石』, 乙支文德的 『與隋將于仲文詩』이 있고, 신라의 작품으로는 『太平頌』이 있다. 『太平頌』은 현전하는 고구려의 한시 작품 3수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뒤이지만 시를 짓는 기교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眞德女王, 『太平頌』, 新羅, 漢詩, 強首.

I. 머리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인 삼국시대의 漢詩 자료는 몇 편 전하지 않는다. 고구려에서 지어진 작품으로 乙支文德的 『與隋將于仲文詩』와 定法師의 『詠孤石』과 작자 미상의 『人蔘讚』, 신라에서 지어진 작품으로 眞德女王 때의 『太平頌』과 『三國遺事』 鼻荊郎 설화에 附記된 한시가 漢文學史에서 거론되는 작품이다.

이 글에서 살펴보려는 작품은 眞德女王 때에 지어진 『太平頌』이다. 『太平頌』은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文選』같은 우리나라 문헌에 실려 있고, 『舊唐書』, 『新唐書』, 『全唐詩』, 『唐詩品彙』 같은 중국 문헌에도 기록되어 전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여러 詩話를 다루는 글이나 역사평론서에서 이 작품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한 글에서 이 글에 대해 뚜렷하게 일치되는 견해는, 매우 우수한 솜씨를 드러낸 작품이라는 것이다.

『太平頌』은 眞德女王이 唐 高宗에게 보낸 당나라를 칭송하는 한시이다. 『三國史記』 眞德王 四年條를 보면 “왕이 비단을 짜고 오언태평송(五言太平頌)을 지어 金春秋의 아들 法敏을 보내 당나라의 황제에게 바쳤다.¹⁾” 라고 하고 이 작품을 실었다. 비단에 수를 놓아 이 시를 새겨 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도 당나라를 한없이 칭송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두고 아부하는 문학 작품의 전형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작품이라는 견해도 있었다²⁾.

『太平頌』은 통일신라 이전에 지어진 몇 편 안 되는 漢詩 작품의 하나로 우리나라 한시의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太平頌』을 다룬 글은 그리 많지 않다. 한문학사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³⁾ 이외에 이 작품만을 다룬 논문⁴⁾은 몇 편 되지 않는 데, 작품에 대한 설명이 제각각 다르다. 본고는 이 작품의 내용 구성과 한시로서의 형식적 특성을 먼저 살 펴 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재검토해보려고 한다.

1. 이 글은 누가 지은 것일까?
2. 이 글은 왜 지었을까?
3. 이 작품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의 한시 작품인가?

1) 김부식, 『三國史記』 卷五, 新羅本紀 眞德王 四年條. “王織錦作五言太平頌, 遣春秋子法敏, 以獻唐皇帝.”

2) 차용주, 『한국한문학사』, 경인문화사, 1995, 48쪽 참조.

3) 김태준, 『조선한문학사』, 朝鮮語文學會, 1933. 14~17쪽. 최해중, 『한국한문학사』, 청구대학 간행, 1958. 14쪽.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1979. 40~41쪽. 이병도 외, 『한국한문학사』, 반도출판사, 1994. 22~25쪽. 이가원, 『조선문학사』, 태학사, 1995. 69~71쪽. 차용주, 『한국한문학사』, 경인문화사, 1995. 46~48쪽.

4) 서수생, 「태평송(작금송)에 대하여」, 『어문학』11호, 한국어문학회, 1963. 이구의, 「眞德女王 代의 『태평송』」, 『신라한문학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2. 김태식, 「唐 太宗~高宗代의 封禪 政局과 신라 진덕왕의 『태평송』」, 신라사학보13호, 2008.

Ⅱ. 「太平頌」의 내용 구성과 형식적 특성

1. 내용 구성

이 작품은 전하는 책마다 몇 글자의 차이가 있으나 大同小異하다. 이 글에서는 『三國史記』에 전하는 작품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한다.

大唐開洪業	위대한 당나라가 큰 왕업을 여니,
巍巍皇猷昌	높고 높은 황제의 계획 창성하도다.
止戈戎衣定 ⁵⁾	전쟁을 그치니 군사들이 안정되고,
修文繼百王 ⁶⁾	문화를 닦아 여러 왕들을 계승하였네.
統天崇雨施	천하를 통합하니 고루 덕을 펼침을 숭상하고 ⁷⁾ ,
理物體含章	만물을 다스리니 含章 ⁸⁾ 을 체현(體現)하도다.
深仁諧日月	깊은 仁德은 해와 달에 비길 만하고,
撫運邁時康 ⁹⁾	時運을 어루만져 태평세월 지향하네.
幡旗何赫赫	필릭이는 깃발 어찌 그리 빛나며,
鉦鼓何鏗鏘	울리는 북소리 얼마나 웅장한가.
外夷違命者	명령 어기는 오랑캐는
剪覆被天殃	천벌 받아 베어져 넘어지리라.
淳風凝幽現	순박한 풍속 음지 양지 고루 퍼지고,

5) 이 구절은 『삼국유사』에는 ‘止戈戎威定’로 되어 있다.

6) 이 구절은 『삼국유사』에는 ‘修文契百王’으로 되어 있다.

7) ‘統天’과 ‘雨施’는 『주역』 건괘(乾卦) 단사(彖辭)에 “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 雲行雨施, 品物流形.(위대하다 乾元이여! 만물이 의뢰하여 시작하니, 이에 하늘을 통합하였도다. 구름이 가고 비가 내려 만물이 형체를 갖춘다.)”에 나오는 말이다. 董仲舒는 “雨施者 布德均也”라고 하였다.

8) 含章: 『周易』 곤괘(坤卦)의 ‘함장가정(含章可貞)’에서 나온 말로 사람의 내면에 품은 미덕(美德), 또는 안으로 미덕을 품고 이를 외부에 나타내지 않는 것을 뜻한다.

9) 이 구절은 『삼국유사』에는 ‘撫運邁虞唐’으로 되어 있다.

遐邇競呈祥	먼 곳 가까운 곳 다투어 祥瑞 바치네.
四時和玉燭	사계절이 조화로워 玉燭 ¹⁰⁾ 같으며,
七曜巡萬方	日月과 五星 ¹¹⁾ 은 만방을 순행하네.
維嶽降輔宰	산의 신령이 보필할 재상 내리시고 ¹²⁾
維帝任忠良	황제는 충성스러운 자 임명하시네.
五三成一德	삼황오제가 이론 한결같은 덕이
昭我唐家皇	우리 당나라 황실을 비추네.

『太平頌』은 20개의 詩句로 이루어진 五言古詩이다. 20개의 시구는 그 내용이 4구씩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 모두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락별 요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단락(1구~4구): 위대한 당나라가 건국되어 文治를 계승함.
 둘째 단락(5구~8구): 천하를 덕으로 다스려 태평한 시대를 만들어 감.
 셋째 단락(9구~12구): 강력한 힘으로 명을 따르지 않는 오랑캐를 징벌함.
 넷째 단락(13구~16구):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나고 사계절이 순조로움.
 다섯째 단락(17구~20구): 어진 신하가 임명되고 삼황오제의 덕이 황실을 비춤.

이러한 다섯 단락의 내용은 모두 당나라와 관계된 진술이다. 첫째와 둘째 단락에서는 당나라가 文治를 잘하여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성대를 이루

10) 玉燭: 임금의 덕이 옥처럼 윤택하고 촛불처럼 밝으면 四時의 和氣를 이룬다는 뜻에서 나온 말.

『爾雅』에 “四時之和謂玉燭”이라는 말이 있음.

11) 七曜: 日月과 五星(火, 水, 木, 金, 土)

12) 『詩經』『大雅, 崧高』에 있는 “維嶽降神, 生甫及申”(산악(山嶽)의 정기가 내려와, 주선왕(周宣王)의 어진 신하인 보후(甫侯)와 신백(申伯)을 낳았네.)라는 구절을 인용한 말이다.

었다고 찬양하고 있다. 셋째 단락에서는 文化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武力도 강성하여 명을 따르지 않는 나라는 징별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넷째와 다섯째 단락은 첫째 둘째 단락과 유사하게 당나라의 위대함을 찬양하는데, 특히 그 위대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의 내용은 당나라의 위대함을 극도로 찬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찬양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頌이라는 한시의 갈래를 이용하였다. 頌이라는 갈래는 시경에서 유래하였는데 임금의 공덕을 표현하는 시였고, 頌이라는 글자는 “聖德을 찬미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¹³⁾

최해중은 『한국한문학사』에서 “시가 매우 좋으나 아부가 너무 심하다(詩極好而阿附過甚이라)”¹⁴⁾라고 하여 ‘阿附’라는 단어를 이 작품의 내용적 특성으로 언급하게 되었다. 그 후에 발표된 서수생의 논문에서는 “이처럼 찬란한 詩詞인 阿附文學으로써 唐帝를 호림이 당시 古新羅의 外交術策이었다.”¹⁵⁾ 라고 하여 ‘아부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이후에 출판된 이병도 외 5인이 공저한 『한국한문학사』에서는 “이 『太平頌』이 빌미가 되어 반도의 事大慕華의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 외교로야 빛났으나 自主에는 찢지 못할 먹칠이 된 셈이다.”¹⁶⁾라는 비판이 있고, 이가원의 『조선문학사』에서는 “우리 詩歌에 있어서 阿諛文學의 嚆矢”라는 말이 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들을 만큼 『태평송』은 당나라를 극도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찬양을 위해 頌이라는 한시의 갈래를 선택하였다. 신라가 자존심을 버리고 이런 내용의 시가를 지어 당나라에 보낸 것에는

13)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1990. 82~84쪽 참조

14) 최해중, 앞의 책, 14쪽.

15) 서수생, 앞의 논문, 69쪽.

16) 이병도 외, 앞의 책, 23~24쪽.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고의 IV장 『太平頌』의 창작한 의도 항목에서 살펴보겠다.

2. 작품의 형식적 특성

『太平頌』은 『三國史記』에는 『太平頌』, 『白雲小說』에는 『太平詩』라고 호칭하였다. 『東文選』에서는 『織錦獻唐高宗』으로 제목을 붙여 五言古詩로 분류하였다.

한시의 형식적 특성은 평측 운용, 압운, 대구의 사용 등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항목은 그 작품이 한시 가운데 어떤 갈래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太平頌』은 每句가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五言詩이다. 『太平頌』의 한시로서의 형식적 특성과 갈래를 규명하기 위하여 평측 운용, 압운, 대구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자.

1) 평측 운용

『太平頌』의 1~8구의 평측 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唐開洪業	측평평평측
巍巍皇猷昌	평평평평평
止戈戎衣定	측평평평측
修文繼百王	평평측측평
統天崇雨施	평평평측측
理物體含章	측측측평평
深仁諧日月	평평평측측
撫運邁時康	측측측평평

『太平頌』는 근체시가 지켜야하는 ‘對’¹⁷⁾와 黏¹⁸⁾을 고려하지 않았다. 제1구를 살펴보면 第2字와 第4字의 평측이 동일하다. 제2구 제3구도 마찬가지다. 對가 맞지 않으니 黏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제3연과 제4연은 句內의 對는 맞지만 黏이 맞지 않다. 그러므로 이 시는 古詩이다. 이 시가 지어진 연대를 따져보면 근체시의 율격이 완성되기 전에 지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평측 운용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의 평측 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의 규칙은 준수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매구의 마지막 글자는 평측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5언 시는 짝수구에 압운을 하는데 이 시도 그것을 준수하였다. 그리고 홀수구의 마지막 글자는 모두 측성을 배치하여 평성인 운자와 대조되도록 하였다.

『太平頌』의 문체상 갈래는 五言古詩이다. 이 시가 지어진 650년 무렵은 당나라에서도 근체시의 형식이 확립되지 못한 때이다. 근체시의 율격은 沈佺期(656~713)와 宋之問(656~712)와 같은 궁정시인에 의하여 완성되었다¹⁹⁾. 그러므로 『태평송』이 근체시의 평측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2) 압운

古詩는 매구에 압운하기도 하지만 근체시처럼 짝수구에 압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太平頌』도 모든 짝수구 마지막 글자에 압운하였다. 『太平頌』이 모두 20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압운한 글자는 모두 10자이다. 이 작품에서 압운된 글자는 ‘昌, 王, 章, 康, 鎧, 殃, 祥, 方, 良, 皇’이다. 이

17) 詩句 안에서 第2字와 第4字, 第4字와 第6字는 평측이 달라야 하며, 出句의 第2字와 對句의 第2字는 평측이 달라야 한다는 규칙.

18) 前聯의 對句 第2字와 後聯의 出句 第2字는 평측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규칙.

19)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1990, 245쪽 참조

글자들을 당나라 대에 완성된 운서인 《廣韻》을 기준으로 살펴보니²⁰⁾ 10자 모두 韻統은 상평성 陽韻이며 一韻到底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압운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작시를 하였다는 것은 한시에 능한 文士가 이 작품을 지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3) 對句(對仗)의 사용

古詩에서 對句는 비교적 자유롭고 일정한 위치가 정해져 있지도 않다. 歐陽脩가 지은 古詩 「寄聖俞」는 모두 20언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가 사용된 것은 3언 뿐이다²¹⁾. 그러나 「太平頌」은 모두 10개의 연에서 6연에 대구를 사용하였다. 두드러진 대구를 뽑아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止戈戎衣定	전쟁을 그치니 군사들이 안정되고,
修文繼百王	문화를 닦아 여러 왕들을 계승하였네.(제2연)

제2연에서는 구의 앞부분인 ‘止戈’와 ‘修文’이 의미상의 대를 이루고 있다. 이른바 上半對에 해당한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人事類에 속하는 武와 文을 대응시켜 놓았으므로 대구의 최고 수준인 工對에 속한다고 하겠다.

統天崇雨施	천하를 통합하니 고루 덕을 펼침을 숭상하고,
-------	--------------------------

20) 이 당시에 사용한 韻書는 隋나라 때 陸法言이 만든 206운으로 된 『切韻』이었을 것이다. 唐나라 때 만들어진 『唐韻』도 754년에 완성되므로 이 시보다 제작 연도가 늦기 때문이다. 지금 『切韻』을 볼 수 없기 때문에 『唐韻』을 근거로 압운을 살펴보았는데, 『唐韻』은 『切韻』을 근거하여 만든 운서이고 두 책 모두 206운의 체계를 가진 것이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中文大辭典』(중국문화대학인행)에 인용된 자료를 참조함.

21) 홍우홍, 『한시운율론』, 영남대학교출판부, 1983, 226쪽 참조.

理物體含章

만물을 다스리니 含章을 體現하도다.(제3연)

제3연은 出句와 對句가 모두 문법적으로 대응되는 관계이다. 내용상으로 보면 ‘天’과 ‘物’이 대응하고 있는데 工對는 아니지만 유사한 것끼리 대응시켰으므로 隣對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深仁諧日月

깊은 仁德은 해와 달에 비길 만하고,

撫運邁虞唐

운수는 요순에 버금가네. (제4연)

제4연도 出句와 對句가 모두 문법적으로 대응되는 관계이다. 내용상으로는 ‘仁’과 ‘運’, ‘日月’과 ‘虞唐’를 대응시켰는데 의미상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느슨한 寬對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幡旗何赫赫

펼럭이는 깃발 어찌 그리 빛나며,

鉦鼓何鏗鏘

울리는 북소리 얼마나 웅장한가. (제5연)

제5연은 이 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구를 보여주고 있다. 出句와 對句에서 ‘何’자를 중복해서 사용한 흠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형식과 내용상 완전한 대구를 이루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旗’와 ‘鼓’가 완전한 事物類의 대를 이루고, 뒷부분에서는 ‘赫赫’과 ‘鏗鏘’ 중첩자의 對와 形容語의 對를 이루고 있다.

四時和玉燭

사계절이 조화로워 玉燭같으며,

七曜巡萬方

日月과 五星은 만방을 순행하네. (제8연)

제8연도 出句와 對句가 문법적으로 대응되는 관계이다. 그리고 ‘四’와 ‘七’이 數字語로서 대를 이루고 있다.

維嶽降輔宰	산의 신령이 보필할 재상 내리시고,
維帝任忠良	황제는 충성스러운 자 임명하시네. (제9연)

제9연도 出句와 對句가 문법적으로 대응되는 관계이다. 뿐만 아니라 ‘嶽’과 ‘帝’, ‘輔宰’와 ‘忠良’이 의미상 사물의 대, 인물의 대를 각각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태평송』에는 정교한 對句를 많이 구사하였다. 그것은 이글을 지은이의 우수한 作詩 능력과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Ⅲ. 『太平頌』의 지은이

『太平頌』의 지은이에 대해서 『三國遺事』에서는 “제28대 진덕여왕이 즉위하여, 스스로 태평가를 짓고, 비단에 수를 놓아서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바치게 하였다.²²⁾”라고 하였고, 『三國史記』에서도 “왕이 비단을 짜고 五言太平頌을 지어 김춘추의 아들 법민을 보내 당나라 황제에게 바쳤다.²³⁾”라고 하여, 眞德女王이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기록에 근거해서 李奎報도 『白雲小說』에서 “이때에는 우리나라의 文風이 隆盛하지 못하여

22) 一然, 『三國遺事』 卷一, 紀異 第一 眞德王條. “第二十八眞德女王即位, 自製太平歌, 織錦爲紋, 命使往唐獻之.”

23) 金富軾, 『三國史記』 卷五, 新羅本紀 第五 眞德王條. “王織錦作五言太平頌, 遣春秋子法敏, 以獻唐皇帝.”

을지문덕의 絶句 한 편 외에는 듣지 못하였는데 女王이 이렇게 지었다 하니 또한 기이하다.”²⁴⁾라고 하여 眞德女王이 직접 지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太平頌』은 한 편의 五言古詩에 불과하지만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황제에게 올리는 외교문서와 같은 역할을 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수준의 문필력을 가진 신하가 작성한 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Ⅱ장의 내용 구성 항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統天’ ‘雨施’ ‘含章’ 등의 용어는 『周易』에 나오는 말을 用事한 것이고, ‘玉燭’은 『爾雅』에서 典故가 있는 말이며, ‘維嶽降輔宰’이라는 구절은 『詩經』에 있는 詩句를 원용한 말이다. 이러한 시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經典을 비롯한 여러 典籍을 학습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시의 형식적 요소를 살펴보더라도 구성의 치밀함, 운자의 사용 등을 고려해 볼 때 詩文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문인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수준의 작품이라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부터 이 작품의 지은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東文選』에서는 이 작품의 지은이를 ‘無名氏’라고 표기하여 알 수 없다고 하였다. 眞德女王이 지었다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말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金萬重은 『西浦漫筆』에서 “신라 진덕왕의 송덕시는 전편이 전아하여 오랑캐의 기운이 전혀 없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작품은 아마도 이 정도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중국인에 돈을 주고 얻어낸 것일 아니었을까?”²⁵⁾ 라고 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중국인에게 의뢰하여 지은 것이라 추측하였다. 그러나 이 견해는 그 당시 신라 지식인의

24) 李奎報, 『白雲小說』, 『東國李相國集』附錄. “是時東方文風未盛, 乙支文德一絶外無聞焉, 而女主乃爾, 亦奇矣.”

25) 金萬重, 『西浦漫筆』. “新羅眞德織錦頌德詩 全篇典雅 絶無夷裔氣 爾時三韓文字恐不能如此 無乃以金購於華人耶”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한 것이라 여겨진다.

金台俊은 『조선한문학사』에서 “妄談이지만은 당시의 國情과 외교의 文壇 형편으로 보아 적어도 强首 같은 사람이 아니면 짓지 못하였을 듯하다.”²⁶⁾ 라고 하여 그 무렵의 외교문서를 많이 지은 强首를 언급하였다. 이 발언은 그 후 이 작품의 작자에 대한 견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²⁷⁾

『삼국사기』 强首 열전을 보면 强首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무렵에 외교문서를 많이 작성한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무렵에 활약한 문인으로 强首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金仁問(629~694)도 『三國史記』에 여러 번 언급된다. 그는 强首와 동시대 인물이지만 『三國史記』에서 强首보다 먼저 활약상이 언급된다²⁸⁾. 그는 金春秋의 둘째 아들이고, 文武王의 동생이다. 어려서부터 儒家書와 『莊子』·『老子』·佛書를 섭렵하였고, 651년(진덕왕 5)에 波珍滄으로서 23세 때 처음으로 唐나라에 가서 宿衛한 이후에 모두 7차례나 당나라에 갔다 왔고, 22년 동안이나 체류하면서 對唐 外交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신라에서 唐나라에 유학생을 보내고 있었다. 신라는 宣德王 때부터 유학생을 보내 唐의 國學에서 공부하게 하였다²⁹⁾.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여 볼 때 그 당시 신라에는 한문 서적을 섭렵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고, 唐나라와 왕래하여 唐의 문물에 익숙한 사람들도

26) 김태준, 앞의 책, 17쪽.

27) 强首가 대작하였다는 김태준의 견해에 대해 이가원은 ‘전인미발의 탁견’이라고 하였고(『조선문학사』, 1933. 70쪽 참조), 徐首生은 『고대한문학연구』(『상산 이재수박사 환력기념논문집』, 1972)에서도 『太平歌』의 지은이를 强首로 기재하였다.

28) 强首의 생몰년을 정확히 알 수 없어 『三國史記』에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金仁問은 眞德王 5년조(651)에 “遣波珍滄金仁問入唐朝貢, 仍留宿衛.”라는 기록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强首는 文武王 13년(673)에 “拜强首爲沙滄”으로 등장한다.

29) 『三國史記』 권5. 宣德王조에 “九年夏五月 王遣子弟於唐 請入國學”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지은이를 꼭 強首로 단정할 수는 없다. 強首일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당시의 어떤 외교문서 작성 담당자가 이 『太平頌』을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IV. 『太平頌』의 창작 의도

『太平頌』은 眞德女王이 즉위한 지 4년 되는 650년에 지어진 것이다. 그 무렵 唐나라는 貞觀의 治를 이루었던 太宗이 649년에 죽고, 高宗이 왕위에 등극하여 있었다. 이 노래가 지어진 650년은 당나라가 건국된 지 33년째 되던 해였고, 당나라는 안정된 국력을 가진 강성한 국가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적 자존심을 버리고 당나라를 극도로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시를 지어 비단에 수를 놓아 바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에 신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三國史記』에서 그 당시에 신라가 어떤 상황에 있었던가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라는 眞德王12년(551년)에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후 백제와의 약조를 어기고 그 지역을 독차지하였다. 이후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국가의 존망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선덕여왕 11년(642) 가을 7월, 백제 의자왕이 대군을 일으켜 신라 도성의 서쪽에 있는 40성을 쳐서 빼앗고, 8월에는 백제가 고구려와 합세해 黨項城을 빼앗았고, 백제의 윤충 장군이 군사 1만으로 大耶城을 공격해 함락시키면서 김춘추의 딸과 사위 金品釋을 죽인다. 『三國史記』 신라본기

善德王11年條를 보면 金春秋는 사위 金品釋 부부의 悲報를 듣고 기둥에 의지하여 서서 눈도 깜박이지 않더니만 이윽고 “슬프도다! 대장부가 되어 어찌 백제를 못 쳐부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고구려의 가서 원병을 요청했으나, 고구려는 오히려 죽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며, 그것을 거절한 그를 감금하였다.

선덕여왕 12년(643)에 신라는 고구려 백제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사직 보전이 위태롭게 되자, 唐에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였다. 선덕여왕 13년(644년)에 당태종은 백제에 사신을 보내 신라에 대한 침략을 중지하기를 권유했다.

선덕여왕 14년(645) 唐太宗이 대군을 일으켜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자 신라는 3만의 대군을 보내어 당을 도왔다. 이 틈을 노려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 서쪽에 있는 일곱 개의 성을 빼앗아 갔다. 위기에 처한 신라에서는 선덕여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는 비난이 일어났다. 그래서 나약한 여왕이 아닌 강력한 王을 세우기 위한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나 王軍의 수호자인 김유신의 군대가 반군을 물리쳤다. 이 해에 선덕여왕이 승하하였고, 그의 사촌인 眞德女王이 즉위하게 되었다.

眞德王은 즉위하던 해(647년) 10월과, 즉위 2년 3월과, 즉위 3년 8월에 백제의 침입을 받았다. 즉위 2년(648)에 金春秋와 그 아들 文王을 唐나라에 보내 唐太宗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즉위 3년에 중국의 복식과 의관을 착용하였다. 즉위 4년에 신라의 연호를 버리고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였다.³⁰⁾ 그해 6월에 당나라에 김춘추의 아들 法敏을 보내 백제를 이긴 사실

30) 신라의 연호 사용은 法興王 때부터이다. 法興王은 즉위 23년(526년)에 신라 최초로 건원(建元)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후 眞興王은 개국(開國), 태창(太昌), 홍제(鴻濟)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진흥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손자 진평왕은 584년에 연호를 건복(建福)이라 했고, 다음 보위에 오른 진평왕의 장녀 선덕여왕은 634년에

을 보고하고, 왕이 지은 『太平頌』을 당나라 황제(高宗)에게 바쳤다.

이상은 『太平頌』이 지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三國史記』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당시의 신라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년 백제의 침략을 받아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고 있었다. 眞德女王은 善德女王的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眞德女王은 일부의 귀족들이 善德女王이 전란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그 당시에 신라는, 해마다 벌어지는 전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여겼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당나라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 당시에 당나라와의 외교를 주도한 인물은 金春秋인데, 그는 眞德王 2년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소원이 무엇이나는 황제의 물음에 우리나라를 자주 침범하는 백제를 물리쳐 달라고 하였다. 황제가 군사를 내줄 것을 승낙하였는데, 김춘추는 관리들의 복식을 중국의 제도대로 하겠다고 청하였다. 그리하여 신라는 그 다음해부터 실제로 중국의 복식대로 의관을 착용하였다. 唐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국가적 체면을 버린 셈이다. 眞德王 2년 겨울에 邯峽許가 唐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황제는 신라가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신라가 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신라가 唐나라와 대등한 황제 국가임을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太平頌』을 지어 바친 眞德王 4년에, 신라는 眞德王 즉위 후 사용하던 태화(太和)라는 연호를 버리고 唐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국가적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은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 해마다 벌어지는 전란을 종식시키는 일이 국가적 자존심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太

인평(仁平)을 썼고, 진평왕의 질녀였던 진덕여왕은 즉위 원년(647)에 태화(太和)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러나 진덕여왕 4년(650)에 신라는 당나라 高宗의 연호인 영휘(永徽)를 사용하게 된다.

平頌」을 지은 의도는 신라가 당의 연호를 사용한 의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의 군사력을 빌리기 위한 외교적 목적 때문에 「太平頌」을 창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V. 「太平頌」의 문학사적 의미

李奎報는 『白雲小說』에서 “三韓은 夏나라 때부터 중국과 통하였으나 문헌이 민멸되어 전하지 않고, 隋唐 이래로 비로소 작자가 있었다. 을지문덕이 수나라 장수에게 준 시와 신라의 眞德女王이 당 나라 임금에게 바친 송(頌)과 같은 것이 비록 簡冊에 실려 있으나 寂寥함을 면치 못하였다.”³¹⁾ 라고 하여, 문헌에 남아 전하는 우리나라 한시의 초기 대표작으로 乙支文德의 「與隋將于仲文詩」와 眞德女王的 「太平頌」을 언급하였다.

韓致滌의 『海東繹史』에 소개된 詩歌 중에서 三國時代의 漢詩를 찾아 보면 고구려의 작품으로 작자미상의 「人蓼讚」, 定法師의 「詠孤石」, 乙支文德의 「與隋將于仲文詩」이 있고³²⁾, 신라의 작품으로는 「太平頌」이 있다. 백제의 한시 작품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기록을 근거해서 보면 「太平頌」은 고구려의 작품으로 전하는 「人蓼讚」, 「詠孤石」, 「與隋將于仲文詩」과 함께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한시 작품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면 「太平頌」과 위에서 거론된 고구려의 한시 3수는 어느 것이 시간적으로 먼저 지어진 것일까? 고구려의 한시 3수 중에서 연대가 분명한 것은 「與隋將于仲文詩」이다. 「與隋將于仲文詩」는 隋나라의 대군이 고구려

31) 이규보, 「白雲小說」. “三韓自夏時 始通中國 而文獻蔑蔑無聞 隋唐以來 方有作者 如乙支之貽詩隋將 羅王之獻頌唐帝 雖在簡冊 未免寂寥”

32) 한치윤, 『海東繹史』 권47, 藝文志 6.

를 쳐들어왔을 때 을지문덕이 그들을 물리치면서 지은 시로 고구려 嬰陽王 23년(612년)이라는 연대가 밝혀져 있다. 그러므로 眞德女王 4년(650년)에 지어진 『太平頌』보다 『與隋將于仲文詩』가 38년 앞서는데, 거의 같은 시대에 지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詠孤石』이 지어진 연도에 대해서는 李九義는 『大東詩選』에 나오는 “定法師는 고구려 승려이다. 일찍이 後周의 標法師와 從遊하였다.”라는 말에 근거하여 後周의 존립 시기인 557년부터 580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³³⁾. 유영표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定法師가 종유했다는 標法師가 564년에 사망했으므로 『詠孤石』은 557년에서 564년 사이에 지어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³⁴⁾. 그리고 李九義는 『人蔘讚』이 『詩經』체인 4언체를 본받은 점에 유의하여 五言古詩인 『詠孤石』, 『與隋將于仲文詩』, 『太平頌』보다 앞선다고 보아 현전하는 최초의 한시 작품으로 보았다³⁵⁾.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삼국시대의 한시로 전해지는 4수의 한시의 제작 순서는 『人蔘讚』, 『詠孤石』, 『與隋將于仲文詩』, 『太平頌』의 순이 된다.

호승희는 『신라한시연구』³⁶⁾에서 ‘신라 한시의 자료상 출발은 太平頌에서 시작된다.’고 하여, 현전하는 신라의 한시로는 『太平頌』이 최초의 작품이라고 하였다. 이병주 외의 『한국한문학사』³⁷⁾와 차용주의 『한국한문학사』³⁸⁾에서도 삼국시대 신라의 한시로는 이 작품만 언급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眞德女王的 『太平頌』은 현전하는 신라의 최초의 한시이며, 현전하는 삼국시대 신라의 한시로서 유일한 작품이라 할

33) 이구의, 「고구려 시대의 시」, 『신라한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2002, 46쪽.

34) 유영표, 「정법사의 『詠孤石』 詩考」, 『동양한문학연구』 26집, 2008, 213쪽.

35) 이구의, 「고구려 시대의 시」, 앞의 책, 47~54쪽.

36) 호승희, 「신라한시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2, 22쪽.

37) 이병주 외, 『한국한문학사』, 반도출판사, 1994, 22~25쪽.

38) 차용주, 『한국한문학사』, 경인문화사, 1995, 46~48쪽.

수 있다. 그러나 이가원은 『조선문학사』에서 『太平頌』보다 더 먼저 지어진 신라의 시를 언급하였다. 그 작품은 『삼국유사』 紀異第一 鼻荊郎條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다음과 같은 시이다.

聖帝魂生子	聖帝의 혼이 아들을 낳았으니
鼻荊郎室亭	여기가 비형랑의 집이다.
飛馳諸鬼衆	날고뛰는 잡귀의 무리들이
此處莫留停	이곳에는 머물지 말아라.

이 노래는 신라 26대 眞平王 때에 살았다는 鼻荊郎을 소재로 한 주술적 노래이다. 鼻荊郎은 죽은 眞智王의 영혼과 결혼한 桃花女가 낳은 아들로써 귀신을 다스리는 신통력이 있었다고 한다. 귀신들은 鼻荊郎의 이름만 들어도 달아나므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노래를 지어 문에 붙였다고 한다.

『삼국유사』의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 노래는 28대 眞德王 때 지어진 『太平頌』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므로 이 작품이 현전하는 최초의 신라 한시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가설에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먼저 이 작품의 율격을 살펴보면

聖帝魂生子	측측평평측
鼻荊郎室亭	측평평측평
飛馳諸鬼衆	평평평측측
此處莫留停	측측측평평

의 평측을 사용하여 근체시의 율격을 구비하고 있다. 운자의 사용도 평성 靑자 운을 사용하여 근체시에 부합한다. 중국에서 근체시의 율격이 다듬어지고 있던 무렵에 이렇게 완전한 근체시가 신라에서 지어졌다는 점이 첫 번째 의문스런 점이다. 그리고 이 작품 앞에 나오는 “時人作詞曰”이라는

말에서 “時人”이 眞平王 때의 사람을 말하는지 아니면 좀 더 포괄적인 시대 개념으로 쓴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엄격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설화에 부수된 작품이다.

金台俊의 『조선훈문학사』를 보면 통일신라 이전의 작품 목록을 나열한 대목이 있다. 그 목록 말미에 “그리고 아즉 年代未考로 있는 것은亡名氏의 鼻荊詞”³⁹⁾라고 하여 鼻荊郎 관련 한시 작품은 연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볼 때 鼻荊郎 관련 한시 작품을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한시 작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를 종합하여 鼻荊郎 관련 한시 작품이 眞平王 때 지어진 것이 아닐 것으로 보는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眞平王 무렵은 近體詩의 형식이 정립되지 않은 시대인데 그 작품은 근체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나. 『三國遺事』鼻荊郎조의 “時人作詞曰.....”의 “時人”이 眞平王 때의 사람을 말하는지 아니면 좀 더 포괄적인 시대 개념으로 쓴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다. 『三國遺事』紀異편에 기록된 설화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시대를 근거로 한 기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역사적 자료가 발견되기 전에는 眞德女王 대에 지어진 『太平頌』을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의 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太平頌』은 眞德女王 4년(650년)에 지어졌는데, 이 무렵에 지어진 신라의 한시는 별로 남아 있지 않다. 『太平頌』이 지어지고 나서 26년 뒤에

39) 김태준, 앞의 책, 14~15쪽.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였다. 『太平頌』이 통일신라시대에 지어진 한시와 어떠한 연관 관계가 있는지는 새롭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VI.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太平頌』은 내용상 5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둘째 단락은 당나라의 문화적 위대성을 언급하였다. 셋째 단락은 당나라의 강력한 무력을 찬양하였다. 넷째 다섯째 단락은 그 위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좋은 현상들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그 내용상 당나라에 대한 찬양 일색이라고 할 수 있다.

『太平頌』은 한시의 갈래상 五言古詩라 할 수 있다. 古詩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평측의 운용에서 근체시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운을 살펴보면 一韻到底의 완벽한 압운을 하고 있다. 대구 사용에 있어서도 10개의 연 중에 6개의 연이 對句를 구사하고 있다. 對句의 사용이 적절하여 내용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詩語 사용의 원숙함을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상당한 솜씨의 문사가 쓴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太平頌』은 당시의 어떤 외교문서 작성 담당자가 지은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에 신라에서는 당나라에 유학생을 보내고 있었고, 왕래도 빈번한 편이었다. 무엇보다도 작품의 수준이 경전과 한시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작품이다. 잘 다듬어진 내용 구성, 10연 20구의 정제된 구성에 완벽한 압운의 구사, 적절한 대구의 사용, 여러 경전에서 활용된 용어의 사용 등이 그 증거라 하겠다.

『太平頌』을 지은 의도는 그 당시에 신라가 처한 상황에서 그 해답을 받

견할 수 있다. 신라는 그 무렵 백제와 고구려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전란 종식을 위해 삼국통일을 생각하게 된 신라는 당나라의 무력을 이용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작품을 당나라에 바칠 때 신라는 당의 복식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신라의 연호를 버리고 당의 연호까지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太平頌」은 당의 무력을 얻기 위한 외교적 선물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의 역사를 보면 신라는 그 선물의 대가를 얻어냈다고 할 수 있다.

문헌에 남아 전하는 삼국시대 한시 작품은 고구려의 작품으로 작자미상의 「人蔘讚」, 定法師의 「詠孤石」, 乙支文德의 「與隋將于仲文詩」가 있고⁴⁰⁾, 신라의 작품으로는 「太平頌」이 있다. 고구려의 작품 3수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뒤지기는 하지만 「太平頌」은 신라의 한시 작품으로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작품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가원은 『조선문학사』에서 「太平頌」보다 더 먼저 지어진 신라의 시를 언급하였다. 그것은 『삼국유사』 紀異第一 鼻荊郎조에 나오는 5언 절구 형식의 시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신라 26대 眞平王 때에 살았다는 鼻荊郎 생존시의 작품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眞平王 무렵은 近體詩의 형식이 정립되지 않은 시대인데 그 작품은 근체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三國遺事』 鼻荊郎조의 “時人作詞曰.”의 “時人”이 眞平王 때의 사람을 말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三國遺事』 紀異편에 기록된 설화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시대를 근거로 한 기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다른 역사적 자료가 발견되기 전에는 眞德女王 대에 지어진 「太平頌」을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의 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40) 한치윤, 『海東繹史』 권47, 藝文志 6.

【참고문헌】

- 김부식, 『삼국사기』.
일 연, 『삼국유사』.
이규보, 『東國李相國集』.
김만중, 『서포만필』.
한치윤, 『海東繹史』.
김태준, 『조선한문학사』, 朝鮮語文學會, 1933.
최해중, 『한국한문학사』, 청구대학 간행, 1958.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1979.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1990.
이병주 외, 『한국한문학사』, 반도출판사, 1994.
차용주, 『한국한문학사』, 경인문화사, 1995.
서수생, 「태평송(직금송)에 대하여」, 『어문학』 11호, 한국어문학회, 1963, pp.50-70.
호승희, 「신라한시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2.
이구의, 「眞德女王 代の 「태평송」」, 『신라한문학 연구』, 아세아문화사, 2002.
김태식, 「唐 太宗~高宗代の 封禪 政局과 신라 진덕왕의 「태평송」」, 신라사학보 13호, 2008, pp.53-93.
유영표, 「정법사의 「詠孤石」 詩考」, 『동양한문학연구』 26집, 2008, pp.197-227.

Abstract

A Review on the 「Taepyongsong」
in the Period of King Jindeok of Silla

Kim, Chung-hee

「Taepyongsong」 is a poem that praises the Tang Dynasty sent by Queen Jindeok to Emperor Gojong. 「Taepyongsong」 was created before Silla unified the three countries, and it is an important work showing the early days of when Korean poem was written. 「Taepyongsong」 is an old poem, written in Chinese, and is composed of 20 verses.

The use of words, the fineness of composition, the arrangement of phrases, and the use of rhyme show that it was written by a person who studied poetry professionally. Kim Tae-joon said that the author of this poem was Kang Soo(强首). This remark has had a tremendous impact on the author's view of this work. This poem was created for diplomatic purposes to strengthen the friendship between the Tang Dynasty, so it would be reasonable to see the author as a person who wrote diplomatic documents at that time.

The survival of Silla has been threatened by continuous attacks by Goguryeo and Baekje for over 100 years. Silla borrowed the power of the Tang Dynasty to destroy Baekje and Goguryeo. Therefore, the intention behind the creation of 「TaepyungSong」 can be attributed to the diplomatic purpose of borrowing the military power of the Tang Dynasty.

「Taepyongsong」 is the first poem written in chinese of Silla. It is the only poetic work of Silla from the Three Kingdoms period. 「Taepyongsong」 is a little later in time than the three poems in Chinese in Goguryeo, but the technique used to make the poetry seems to be the best.

Key Word : Queen Jindeok, 「Taepyongsong」, Silla, Korean poem written in chinese,
Kang Soo.

김충희

소속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자우편 : duljae@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4월 17일 투고되어
2018년 6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6월 7일 게재 확정됨.